

얼마전 내가 공장문학소조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랑림지구에 남기신 불멸의 자욱을 깊이 새기기 위하여 답사길에 올랐을 때의 일이었다.

구름도 쉬여넘는다는 높고높은 황수령, 이 령의 본래 이름은 아득령이었다. 그것은 해방전 살길을 찾아 이 령을 넘어 랑림땅에 들어갔던 류량민들이 정든 고향에 돌아갈 길이 아득하다고 하여 이 령을 아득령이라고 불려왔다고 한다. 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령을 황수령으로 고쳐부르도록 하여주시었다.

이 령을 넘으며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울창한 숲을 둘러보는 나의 머리에는 두메산골 랑림군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우리 옆집 철이 할머니고향이 랑림군이다. 그 할머니는 가끔 랑림이야기를 하곤 했다.

랑림군은 예로부터 사람 못살 고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리때가 옥실거리고 천연수림이 울창하여 랑림이라 부르는 지명 그자체에도 인적드문 고산지대의 표상이 보이는것이다. 도시의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고장이고 곡식이 잘 안되는 높고 척박한 지대이다. 여름보다 겨울이 더 긴 추운 지방이어서 살길이 없는 류량민들이 들어가 얼마간 살아보다가는 다시 떠나가곤 했다는 곳이다. 하여튼 랑림군사람들은 다른 고장보다 무지와 궁핍을 더 가까이하고 살았다고 한다.

옆집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랑림군을 떠나온지가 40여년이 되어오는데 그때만 해도 랑림군소재지가 벌방의 리소재지만도 못했다는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왔기에 내가 상상해보는 랑림군은 그사이 달라졌겠지만 도시나 벌방보다 많이 뒤떨어진 심심산골이었다. 그런데 령을 내려 읍거리에 들어선 나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고속도로처럼 넓게 뻗은 토사도로옆으로 아담하고 깨끗한 문화주택들이 줄지어 늘어서있는것이였다. 군문화회관이며 국수집 등 덩지가 큰 건물들과 규격화된 드넓은 감자포전들...

하늘아래의 첫 동네가 천지개벽을 한것이다.

내가 탄복하는 기색을 보이자 황수령을 함께 넘어온 랑림군의 일군이 빙그레 웃었다.

《랑림군에 처음 오는가요?》

《예, 그런데 놀랍군요. 여긴 사람도 적은 산간군이겠는데 정말 잘 꾸렸습니다.》

나의 진심어린 감탄에 그 일군은 겸손하나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우리 랑림군이야 백두산3대장군의 발자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령사의 땅이 아닙니까.》

《?!...》

《동무들도 다 알다싶이 우리 랑림땅에는 항일

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내진출을 위한 비밀근거지를 꾸리시고 활동하신 외갈봉밀영과 수채골밀영이며 수령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활동하시던 진흥야학에도 절세위인들의 업적이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이런 령사의 땅에서 사는 궁지와 영예가 우리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으나 나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새로운 눈길로 거리를 둘러보는 나의 시야에 거리의 입구에 세운 대형구호들이 안겨왔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는 구호들을 보는 순간 나의 가슴이 쿵 울렸다.

이것이였구나.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의 혁명전통이 이들에게 기적을 날게 하였구나.

생사를 판가리하는 혈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한 고결한 혁명정신,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굽힐줄 모르는 백철불굴의 투쟁정신, 이것이 랑림사람들을 키운것이리라.

남들같으면 열백번 주저앉았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낡은 집을 허물어버리고 멋쟁이 문화주택을 짓고 혁명사적관과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이며 군연혁소개실, 군문화회관과 국수집, 도서관과 은덕원을 도시건물에 짝지지 않게 일떠세운 랑림사람들. 하기에 높고 험한 령을 넘어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릴수 있었으리라....

그날을 돌이켜보는 나의 눈앞에는 투사들의 혁명신념을 영원히 간직하고 푸른 하늘을 떠받들고 서있던 구호나무들이 선히 떠올랐다.

《만고의 명장 김일성장군 만세》, 《백두산녀장수는 조선의 항일녀장군》, 《백두항일총성 삼천리에 울린다!》

투사들의 걱정과 환희의 웨침이 오늘도 구호나무에서 울려나오는것만 같다.

그렇다. 정녕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역센 뿌리이다. 하기에 우리 혁명은 그 어떤 광풍에도, 그 어떤 잡바람에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전진하며 승리만을 이룩하는것이다.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는 오늘의 시대정신도, 온 나라에 휘몰아치는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도 모두 백두의 넋에 근원을 두었기에 것처럼 세차고 것처럼 뜨거운것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역센 뿌리,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어 내 조국은 오늘도 래일도 더없이 튼성번영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의 위용을 더욱 눈부시게 온 세상에 펼쳐가리라.